

Tractatus에 있어서 ‘屬性’의 존재성격에 관한 小考

李 佐 鎔

〈차 례〉

- 1장 : 머리말
- 2장 : 명목론적 견해
 - 1절 : 속성이 대상일 수 없는 이유
 - A. 명제함수의 기호적 사용방식
 - B. 물질적 속성의 生起과정
 - C. 속성을 갖는 요소 명제의 모순성
 - 2절 : 대상은 無規定性的의 특수자이다
- 3장 : 실재론적 견해
 - 1절 : 명목론 비판
 - A. B. C.
 - 2절 : 실재론일 수 있는 이유
- 4장 : 결론— 비판적 재구성

一. 머 리 말

대다수의 말은 일반적이다. 고유명사와 달리 일반언사는 不定數의 많은 사물과 사건에 대해서 述語로 사용될 수 있다. 즉, 一群의 특수자들은 同一한 述語를 가질 수 있다.

固有명사가 한 특수자를 表示하듯이 일반언사도 한 보편자를 表示할 수도 있다. 이 때에 일반언사는 고유명사와 同一한 종류와 기능을 갖는 이름(name)이 된다. 그러나 일반언사는 고유명사와 다른 사용방식을 언어 內에 갖고 있다.

일반언사가 表示하는 대상과 고유명사가 表示하는 대상은 各者가 귀속될 범주가 다를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편자와 특수자는 상호간에 類推될 수 없다. 아물든 한 일반언사가 表示하는 한 대상(즉, 보편자)이 있다면 그것의

존재론적 성격과 위치는 言語가 갖는 일반성에 대한 역할을 說明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言語的 構造內에서 논의되고 受容되어야 한다는 制約을 보편자에 대한 이론은 갖고 있다.

Wittgenstein는 한 명제(또는, 한 문장)는 實在의 한 그림(畫)이라는 그림 언어(picture language)의 이론을 주장한다. 그런데 事實(facts)만이 문장으로 되거나 記述될 수 있다. 事實을 구성하는 대상은 그 자체로는 事實과 獨立해 있는 것이므로 결코 記述될 수 없다.

우리의 言語가 世界에 대한 그림이라면 言語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언사는 世界의 어떤 모습에 相應하는 부분이 틀림 없다. Wittgenstein에 있어서 말해질 수 있는 最小의 것은 原子事實(Sachverhalt)이고 말해진 最小의 것은 요소명제이다. 그림이론에 좇아 그것들은 서로 간에 각요소의 관계형식이 同一하고 各要素가 서로 相應한다.

本稿는 Wittgenstein의 언어구조 속에서 속성의 존재위치와 성격이 어떠한가를 탐구하고자 한다. 그런데 일상언어가 그려내는 한 事實속에서 일어나는 한 속성은 다른 事實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므로 보편자일 수 있다. 여하튼, Wittgenstein에 있어서 말하고 기술될 수 있는 것은 事實 뿐이므로 속성의 성격과 존재위치도 한 事實의 구조로부터 파악할 수 밖에 없다. 事實에 대한 그림으로서 직접 우리에게 밝혀지는 것은 요소명제뿐이므로 우리는 요소명제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함에서 출발해야 한다.

*Tractatus*에서 속성(property)이 占하는 존재위치에 關한 논쟁은 다음의 두 질문에 대한 相異한 대답에서 나타난다.

(1) 特殊者(particulars)와 마찬가지로 속성도 原子事實(atomic facts)¹⁾의 구성요소인가?

(2) 속성은 特殊者와 그 종류(kinds)가 다른가?

*Tractatus*를 名目論的으로 보는 사람들은 (1)과 (2)에 대해 모두 부정적으로 답변한다. 한편, *Tractatus*를 實在論的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1)과 (2)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다.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은 (1)은 긍정하지만 (2)는 부정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 생각은 망상이다. 왜냐하면 특수자와 종류가 같은 속성은 例가 없이는 이해될 수도 없고 파악될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初期 Wittgenstein은 철저한 논리적 분석에 의한 實在照明에 몰두하였기 때문에 그는 일반적이고 문법적인 의미에서, 즉 日常言語의 표면에서 속성의

1) Sachverhalt는 存在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2.06, 2.062, 2.201참조) 하나의 논리적(가능적) 사태일 수 있지만, 2.0124에서 가능적 Sachverhalt란 말도 있고 Sachverhalt의 비존재도 하나의 소극적사실이므로(2.06) Ogden의 번역에 좇는다.

예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日常言語 內部에 감춰져 있는 論理的 整然性²⁾에 있어서만 속성의 存在 위치를 밝힐 수 있다. 즉 원자사실의 존재론적 배열을 開示함으로써 속성의 존재 위치는 드러내져야만 한다.

二. 名目論的인 견해

원자사실은 대상들의 構成이다(2.01, 2.0272). 그리고 이 원자사실에 相應하는 要素命題는 이름들의 결합, 즉 연쇄이다(4.22). 한 이름은 한 대상을, 다른 또한 이름은 또 다른 한 대상을 表示하며 그런 이름들은 서로 結合되어 있다. 그래서 生動하는 그림과 같이 원자사실을 나타낸다(4.0311). 원자사실을 구성하는 그 대상들은 어떠한 것일까? 전통적 형이상학의 범주인 關係, 속성, 그리고 特殊者 중의 어느 쪽에 *Tractatus*의 대상은 보다 귀속되는 것일까. I.M. Copi에 의하면 *Tractatus*의 '대상'은 결코 관계나 속성일 수는 없다. 따라서 그 '속성'이 전통적 범주에 상응하려면 특수자일 수 밖에 없다고 한다.³⁾

이 見解에 따르면 모든 대상들은 이름으로 表示되는 반면에 관계는 이름이 아니라 관계에 의해 表示된다. 따라서 대상과 관계는 判異하다. 즉 대상은 관계가 아니다.

1. 속성이 대상일 수 없는 이유

本稿의 主題가 되는 속성의 存在에 대한 名目論者들의 견해는 속성은 결코 原子事實을 구성하는 對象일 수 없다는 것이다. 속성이 대상이 아니라는 論證에 대한 증거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A. 명제 함수의 記號的 사용방식

Copi에 의하면 대상이 속성이 아니라 특수자라는 것은 記號의 사용방식에 의해서 *Tractatus*에서 제시된다고 한다.⁴⁾

“한 명제 'fa'는 대상 a가 일어난다는 것을, 두 명제 'fa'와 'ga'는 그 두 명제가 모두 同一한 대상에 대한 것임을 밝힌다(4.1211)”. 여기서 대상 a는 한 속성이나 술어의 記號로서가 아니라 個體的 常數로서 보통 역할하는 것이다.

“그래서 'x'라는 변수적 이름은 假 개념인 대상의 고유기호이다....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대상이 있다.'는 명제에 있어서, 그리고 '($\exists x, y$)...'라는

2) *Tractatus* 5.5063과 3.143참조 本文의 괄호안의 숫자와 以下の 주석內의 번호는 *Tractatus* 內의 번호임.

3) Irving M. Copi; *Objects, Properties and Relations in the Tractatus in Essays on Wittgenstein's Tractatus*

4) *Ibid.* p. 182.

명제에서(4.1272).” 여기서 “대상”이라는 말은 술어나 속성의 변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個體的 변수에 의해서 기호화된다. Wittgenstein은 나아가서 다음과 같은 진술을 전개한다. “이름은 단순한 기호이며 나는 이름을 單一文字(x, y, z)로써 지시한다. 나는 要素命題를 ‘ fx ’ ‘ $\phi(x, y)$ ’와 같은 형식 속에서 이름들의 기능으로서 쓴다.(4.24)” 여기서 (대상의) 이름들은 술어나 속성의 변수가 아닌 개체적 변수에 의해서 기호화된다. 이러한 記號의 사용방식에 대한 Wittgenstein의 진술은 대상이 속성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는다고 Copi는 주장한다.

Anscombe는 *Tractatus*內的 또 다른 例를 가지고 대상은 속성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⁵⁾

“명제기호의 본성은 쓰여진 기호대신에 그 기호가 3차원의 대상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매우 分明해진다.(3.1431)”. 여기에서 요소명제는 이름들의 연쇄라고 할지라도 그 명제는 이름들을 表示하는 문자들과 기능(functions)을 表示하는 문자로 구성된 式에 의해서 再產出되지 않는다.

Anscombe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함수기호는 Wittgenstein의 그림언어(picture language)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點이다. 그녀는 Wittgenstein의 이론을 Frege의 이론과 비교할 때에 Wittgenstein에 있어서의 요소명제는 결코 Frege가 분류한 개념과 같은 것을 ‘대상’으로 받아 들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Frege는 대상과 마찬가지로 개념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Frege에 의하면 개념은 함수(functions)에 의하여 나타나지며 대상은 이름에 의해 나타난다. 이처럼 Frege의 한 요소명제는 한 함수와 이름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Wittgenstein의 요소명제는 이름으로만 구성되고 함수는 그 명제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Wittgenstein은 Frege가 대상들이라 부른 실재(특수자)의 종류만 요소명제에 허용한다는 것이 Anscombe의 주장이다. 그래서 원자사실은 특수자으로써만 구성한다.

B. 물질적 속성의 生起과정

“세계의 실체는 오직 한 형식을 규정할 뿐이며 어떤 물질적 속성도 규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속성은 명제에 의해서 비로소——대상의 구성에 의해서 비로소 나타난다.(2.0231)” 여기서 날카로이 비교된 ‘형식’과 ‘물질적 속성’이라는 용어는 명확히 정의될 수는 없으나 ‘형식적’이란 말은 ‘논리적’ 혹은 ‘가상적’이란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⁶⁾ ‘물질적 속성’은 우연적, 또는 경험적 속성으로 이해된다.

5) Anscombe, G.E.M.; An Introduction to Wittgenstein's *Tractatus*. 1959, p.100.

6) *Tractatus* 6.12, 2.0141, 2.033, 4.126참조

우선 대상은 형식이나 형식적 속성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대상은 表示될 수 있는데 反하여서 형식적 속성은 表示될 수 없다는 데에 있다.⁷⁾ 또한 대상은 물질적 속성일 수도 없다. 왜냐하면 물질적 속성은 “대상들의 구성에 의해서 비로소 형성되기” 때문이다. 만일 대상들이 물질적 속성이라면 2.0231의 句는 물질적 속성이 물질적 속성들의 구성에 의해서 비로소 형성된다는 주장이 된다. 그렇다면 매우 옳지 못한 後行(vicious regress)이 생겨난다. 그런 무한한 後行을 없애려면 대상이 물질적 속성일 수 있음을 부인해야한다. 이런 뜻에서 형식적이든 물질적 속성이든 간에 그것들이 대상일 수는 없다고 名目論者는 주장한다.⁸⁾

C. 속성을 갖는 요소명제의 모순성

“대상은 단순하다.(2.02)” “대상은…複合的일 수 없다.(2.021)” 그런데 어떤 속성은 확실히 복합적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또한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속성은 단순한 것. 즉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Wittgenstein은 原子事實의 철저한 多元論을 주장한다. “원자사실은 서로 獨立하여 있다.(2.061)” 또한 “원자사실의 모든 결합이 존재한다는 것은 가능하다. …(4.27)” 가장 단순한 명제인 要素命題는 원자사실의 존재를 주장한다. 따라서 어떠한 요소명제들도 상호간에 모순될 수는 없다.⁹⁾

어떤 속성이 단순하다면 特定の 가장 단순한 속성일 것이다. 그러할 때에 그런 속성을 表示하는 이름으로 구성된 명제는 요소명제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視野內에 있는 한 반점이 붉다고 주장하는 한 명제와 그 반점이 푸르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명제는 상호간에 독립적 관계일까? 즉 그 두 명제는 모두 옳을 수 있을까? Wittgenstein의 대답은 분명히 부정적이다.

“두가지 色이 가령 視野內의 한 장소에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色의 論理的 구조에 의해서 배제되기 때문이다……(두 요소명제의 논리적 產出은 결코 同一한 내용일 수도 없으며 모순적일 수도 없다. 視野內의 한 반점이 同時에 두 相異한 色을 갖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6.3751)

따라서 色을 술어로 구성한 명제는 요소명제가 아니다. 이로부터 대상은 속성이 아니라는 것이 分明해진다.¹⁰⁾

물론 속성을 대상으로 여길 수 있는 약간의 증거가 있음을 Copi도 인정하고 있다.¹¹⁾

7) 3.22, 3.221, 4.12, 4.121참조

8) I.M. Copi, Ibid. 189. Anscombe, Ibid. p.111참조

9) 4.21, 4.211, 5.134참조

10) I.M. Copi, Ibid., p.183, 184.

11) I.M. Copi, Ibid. p.181.

“...(이 푸른 색과 저 푸른 색은 明暗의 정도와 같은 內的關係 속에 있다. 이 두 대상이 이런 관계에 있지 않음을 생각할 수 없다)…”(4.123) 여기서 ‘대상’이라는 用語는 이 푸른색에 적용된 것이다. 그러나 속성을 나타낸 ‘대상’의 이런 사용방식은 그 다음의 인용귀절에서 그릇된 사용임이 지적되어진다.

“...(여기서 ‘속성’과 ‘관계’의 모호한 사용에 相應하여 ‘대상’이란 단어의 모호한 사용이 있다)…(4.123)” 이와같이 Wittgenstein은 문제된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의 어떤 모호한 용통성을 깨닫고 있다. 그리고는 곧 그는 인용귀절에서 속성을 나타낸 ‘대상’이란 단어가 正型的인 사용에 어긋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속성이 대상이라고 여길 수 있는 또 다른 진술이 있다. “실제세계와 사유된 세계가 아무리 다를지라도 그것은 어떠한 형식을 실제세계와 共有하고 있어야 한다.”(2.02) “이 固定된 형식은 대상들로 구성된다.”(2.023)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견해에 따르면, 世界內的 특수자의 총수는 偶然的이며 또한 사유된 世界에는 다른 數의 특수자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특수자가 이 두 세계에 공통적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생각이다. 그래서 이 두 세계에 공통된 대상은 특수자일 수 없고 또한 關係일 수도 없으므로 속성이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은 Wittgenstein이 ‘일반적 견해’를 지지한다는 전제하에서나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Wittgenstein은 다른 가능세계는 다른 속성을 담을 수 있다고 확실히 주장한다. 還元의 公理(axiom of reducibility)가 특수자의 存在가 아니라 第一次기능이나 속성의 存在를 주장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환원의 공리가 타당하지 않은 世界를 思惟할 수 있다”(6.1233)고 말한다. 그의 말은 실제세계와 사유세계에서 同一한 것은 속성이 아님을 확실히 의미한다. 그러므로 대상이 이 두 세계에 同一한 것이라면 특수자일 수 밖에 없다.

Wittgenstein의 대상이 속성이 아니라 특수자라는 증거는 후기작품인 「철학적 탐구」에서도 발견된다. 거기서 그는 ‘제-요소’만이 이름지워진다는 Theaetetus의 원리를 인용한 다음 Russell의 ‘개별자’와 *Tractatus*의 ‘대상’이 그러한 ‘제-요소’라고 덧붙인다.(21e)

2. 대상은 無規定性的의 특수자이다.

대상이 특수자라면, 그 특수자는 대상이 갖는 성격에 좇으면 어떤 성격의 특수자일까? 형식적(논리적)속성과 물질적(우연적)속성에 대한 區別로부터 세 종류의 특수자를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대상이 한 물질적 속성을 갖는다면 한 형식적 속성도 갖는 것이지만 그 逆은 成立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한 특수자가 한 물질적 속성을 갖는다면, 그 특수자는 그 물질속성을 소유할 수 있는 형식적(가능적)속성을 갖고 있어야한다. 그러나 실제로 물질적 속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한 특수자는 다른 특수자와 관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형식적 속성이나 물질적인 어떤 속성도 갖지 않는 절대적으로 無規定性的의 특수자와 형식적 속성을 가지나 물질적 속성을 갖지 않는 無規定性的의 특수자(bare particulars), 그리고 형식적 속성과 물질적 속성을 모두 갖고 있는 質化된 특수자를 정의할 수 있다.

Copi에 의하면, 절대적인 無規定性的의 특수자를 논의한 철학자를 역사상에서 찾아 볼 수 없다고 한다. 비록 無形式의 실체를 논의하더라도 그 實體가 어떤 형식을 受容할 수 있는 가능성 마저 배제한 철학자는 없다는 견해이다.¹²⁾ 또한 분명히 Wittgenstein은 대상은 '內的인' 속성(2.01231), 즉 가능성으로서 한 형식을 갖는다고 말한다(2.0141). 따라서 *Tractatus*內的의 대상은 절대적인 無規定性的의 특수자가 아니다.

*Tractatus*의 어떤 귀절은 대상이 內的인 속성과 함께 外的인 속성도 가진다는 생각을 일으키기도 한다.¹³⁾ 그러나 “대상은 無色이다”(2.0232)라는 Wittgenstein의 진술은 提喻로서 이해해야한다. 왜냐하면, 문맥상 그 귀절은 단지色的 성질만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적 속성을 부인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Tractatus*內的의 대상이 무규정성의 특수자라는 논거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事態(복합체 사실)는 記述될 수 있으나 대상은 오직 이름지워질 수만 있다.¹⁴⁾ 따라서 한 대상이 한 속성을 갖는다면 그 말은 이미 한 記述를 구성한 사실이므로 대상은 記述될 수 없다는 論理에 어긋난다. 둘째, 명제기호는 분석할 수 있으나 이름이나 단순기호는 분석할 수 없으므로 모든 명제기호는 複合的의이다.¹⁵⁾ 그러므로 모든 명제는 적어도 두 요소를 가진다. 따라서 각명제가 주장하는 原子事實도 同一한 논리적(수학적) 다양성(4.04)을 가지므로 적어도 두 요소(대상)를 가진다. 그런데 대상은 특수자라는 點이 밝혀졌으므로 各 原子事實은 적어도 두 特殊者를 갖는다. 만일 한 특수자가 속성을 갖는다면, 그 진술은 단지 한 특수자만을 갖는 原子事實을 주장하므로 論理에 어긋난다.

以上の 논거에서 *Tractatus*를 명목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Wittgenstein

12) Copi, Ibid. p.184.

13) *Tractatus*. 2.01231, 2.0233, 4.023참조

14) 3.144, 3.24, 4.023, 3.221참조

15) 3.25, 4.032참조

의 대상이 가능성의 형식을 제외한 어떤 속성도 갖지 않는 無規定性의 특수자라고 주장한다. 世界의 實體를 이루는 이런 대상은 물질적 속성을 갖는 제-일체(primary substance)보다는 根底(substrata)라는 의미에서 Aristoteles의 제-질료(Prime matter)에 보다 相應한다. Wittgenstein에 있어서 대상은 물질적 속성을 가지므로 물질적 속성은 대상에 대해서 결코 올바르게 술어로 사용될 수 없다.

三. 實在論的인 견해

속성은 原子事實을 구성하는 實體일 수 없다는 名目論的 입장이 전통적 존재론과 같은 合理的 근거가 없다고 실재론자들은 비난한다.¹⁶⁾ E.B. Allaire의 하면 初期 Wittgenstein이 깊은 合理的 관심에 置重한 나머지 視野內的 한 반점에 대해서 주장된 “이것은 불다”라는 옳은 명제를 다음과 같이 分明히 분석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한다. ‘이것’과 ‘불음’은 相異한 實在(entities)를 지시할 뿐만 아니라 相異한 종류(kinds)의 실재를 지시한다.¹⁷⁾

實在論的 해석은 名目論에 대한 批判에서 부터 自己理論을 전개한다.

1. 名目論 비판

A. *Tractatus* 2.0231의 前後 문맥에 비추어보면, 2.0231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實在와 그 實在가 실제로 일어나는 무대로서의 事實과의 논리적 결합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2.0231은 原子事實의 구성요소는 단순하다고 주장하는 論理的 原子論의 한 변모된 樣態이다. 두 原子事實 사이에 論理的 결합이 없듯이 한 實在와 그 實在가 실제로 일어나 있는 한 事實과 논리적 결합은 없다. 그러나 실재일반과 사실일반 사이에는 어떤 논리적 결합이 있다. 한 實在가 處한 종류는 그 實在가 일어 날 수 있는 事實들의 테두리(범위)를 規定한다. 거듭하자면, “세계의 실체는 단지 한 형식을 규정할 뿐이다”는 진술이 뜻하는 바는, 한 實在는 자기가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의 가능성적 범위를 정할 뿐이지 어떤 물질적 속성은 정할 수 없다는 말로서, 한 實在가 處한 종류와 그 實在가 갖는 特定屬性 사이에는 논리적 결합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視野內的 한 반점은 불을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한 色은 가져야 한다(2.0131). Wittgenstein이 강조한 차이점은, 한 단어가 뜻하는 것(그 단어가 즉, 지시하는 것과 그 단어의 사용을 統制하는 構文的 법칙들)을 아는 것과 그 단어가 일어난 옳은 문장을 아는 것 사이에 있는 차이점으로 설명이 될 수

16) Edwin, B. Allaire; *The 'Tractatus': Normalistic or Realistic op. cit.* p. 328.

17) E.B. Allaire, *Ibid.* p. 325.

다. 즉 한 대상의 형식적 속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는 그 대상의 記號를 統制하는 形式化의 法則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 대상의 물질적 속성을 나타내려면 우리는 그 대상의 記號가 일어나 있는 處인 문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Wittgenstein이 물질적 속성은 명제에 의해서 비로소 나타난다고 말할 때 그는 가령 視野內的 한 반점이 붉다는 사실을 表現하기 위해서는 단어들을 결합해서 한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 반점을 表示한 記號의 使用법칙으로는 '붉음'은 나타나지 않는다.

2.0231에서 Wittgenstein은 형식적 속성과 물질적 속성의 差異를 다음과 같은 뜻으로 강조하는 것이다.¹⁸⁾

한 실재가 갖는 형식적 속성은 그 實在가 구성된 事實에 독립해서 그 實在가 일어날 수 있는 구성들(configurations)을 이미 定해 놓고 있다. 反面에 물질적 속성, 즉 한 實在가 갖는 特定속성은 그 實在의 형식적 속성에 의해 規定되지 않고 실재들의 構成 속에서 비로소 나타난다. 2.0231은 예를 들면 한 반점은 반드시 한 色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과 한 반점이 붉다는 사실의 差異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前事實은 論理的이며 그 實在가 處한 종류에 달려 있다. 後事實은 偶然的이며 그 반점과 결합한 다른 실재들(예, 붉음)에 달려 있다. 이로부터 Wittgenstein이 형식적 속성을 內的인 것으로서, 물질적 속성을 外的인 것으로서 말하는 뜻에 의미가 있다.

以上の 說明에서 보면, 2.0231의 뜻은 속성이 原子事實의 구성요소인가라는 문제와 별 상관이 없다. 애매한 방식으로 2.0231은 한 言語의 形式化의 법칙과(formation rules) 그 言語가 만든 眞은 문장(true sentences) 사이의 차이점을 주장하고 있다. 형식화의 법칙은 實在들의 內的인 속성에 의존하며 眞은 문장은 실재들의 外的 속성에 의존한다. 그러한 內容이라면 2.0231은 各目論과 實在論의 문제와 별 상관이 없다. 이런 點에서 Sellars도 Copi를 비난했다.¹⁹⁾

B. Frege는 개념과 대상이라는 두 상이한 종류의 실재가 있다고 한다. 또한 그는 개념은 함수로 表示되고 對象은 이름으로 表示된다고 주장한다. Frege에 있어서 한 原子명제는 이처럼 한 함수와 한 이름으로 구성된다. Anscombe에 의하면, Wittgenstein의 요소명제는 오직 이름으로 구성되고 함수는 요소명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그의 요소명제는 단지 Frege가 대상들이란 부른 실재의 종류(즉, 특수자)만을 受容할 수 있다. Allaire에 의하면 이런 비교는 좁은 생각이며 이런 논증은 粗野하다.²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8) E.B. Allaire, Ibid. op. cit. p. 330.

19) W. Sellars, Naming and Saying. op. cit. p. 262.

20) E.B. Allaire. Ibid. op. cit. p. 322.

a. Wittgenstein의 명제함수 기호법을 깊이 탐구해 보면 그가 Frege를 부인한 뜻이 드러난다. 이 뜻을 알고나면 Anscombe의 비교가 기호법에 대한 부주의한 통찰에 起因함을 알 수 있다.

이제 명제함수기호법을 탐구해보자. “고유개념과 달리 형식개념은 함수로 表示될 수 없다. 왜냐하면 형식개념의 특징, 즉 형식적 속성은 함수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형식적 속성의 표면은 어떤 記號의 한 모습이다...” (4.126). 여기서, 형식개념과 고유개념이 區別되면서 고유개념은 함수에 의해서 스스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식개념에 統制받는 것이다. 예를 들면, ‘ $f_1(x)$ ’가 고유개념인 붉음을 나타내는 함수라 하자. 이것은 어떤 실재도 表示하지 않으므로 함수일 수 없는 ‘ f ’라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형식개념의 속성에 통제된다. 그것은 한 변수(a variable)이다. 이로부터 Wittgenstein이 고유개념을 실재로서, 즉 원자사실의 구성요소로서 생각한다는 것이 밝혀진다. “視野內의 한 반점은 반드시 한 色을 가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음률은 한 가락을, 접촉대상은 한 硬度를 가져야 한다(2.0131).” Wittgenstein은 특수자들이 處한 相異한 종류를 나타내는 어떤 속성을 어떤 특수자들은 갖는다고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가령, 視野內 한 반점은 퍽(tone)을 가질 수 없다. 특수자들이 여러 종류라는 말은 그것들과 결합해서 事實로 만들 수는 있는 다른 實在들(즉 속성들)에 對해서 그 특수자들이 制約되어진다는 뜻을 갖고 있다. Wittgenstein의 이런 내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다. 모든 실재가 함수에 의해 나타나야만 한다는 사실은 그 함수가 表示할 수 있는 실재들의 한계를 反映한다. 왜냐하면 함수는 內在的인 형식화법칙이기 때문이다.

비록 Wittgenstein이 모든 실재는 함수로써 나타나야만 한다고 주장한다해도 그가 이름과 함수의 區別을 부인한 것은 아니다. 다만 Frege와는 同一한 뜻의 區別을 하고 있지 않다. Frege의 함수와 이름이 각已 相異한 두 종류의 실재를 表示하는 반면에 Wittgenstein의 함수와 이름은 실재의 두 樣相을 反映한다. 정확히 말해서 이름은 실재를 지적하며 함수는 그 實在의 형식적 속성을 표시한다.

그의 형식개념과 고유개념의 사용법을 다시 검토해 보자. 고유개념은 실재이므로 함수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반면에 형식개념은 나타날 수 없다. 그러나 한 실재를 함수로써 나타낼 때에 이미 實在의 형식적 속성, 즉 그 實在이 일어날 수 있는 事實의 종류는 나타나 있다. 우리는 실재의 물질적 속성, 즉 실재가 결합하는 다른 실재들은 表示하고 있지 않다. 表示하고 싶다면, 우리는 진정한 문장, 즉 결합된 他實在를 지시하는 기호를 담은 문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 문장에서는 어떤 함수도 일어나지 않고 오직 이름만이 일어난다. 거듭하면, 한 문장(sentence)은 한 실재의 他實在들과의 결합을 나

타내며 한 실재의 형식적 속성은 나타내지 않는다.

이런 點에서 한 實在의 형식과 그 實在의 형식적 속성을 區分해둘 필요가 있다. 한 실재의 형식은 그 實在의 존재론적 종류—가령 특수자인가 속성인가—이다. 그 형식은 한 변수의 代用例인 한 記號에 의해 보여진다. 한 실재의 형식적 속성은 그 實在가 한 事實內에서 결합할 수 있는 종류들이다. 가령 속성은 특수자이든가 속성의 속성이든가와 결합할 수 있다. 이처럼 형식적 속성은 內在的인 형식화법칙인 함수에 의해 나타내진다. Wittgenstein은 법칙을 表示함에 있어서 함수(function)를 사용했다. 그 깊은 이유중의 하나는 그가 論理(logic)에 어떤 존재론적 위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형식화법칙을 논리적관계 위에 보다는 실재들 위에 기초를 둔다. (3.331참조) 따라서 모든 실재는 메타—언어 속에서는 적어도 함수로써 表示되어야 한다.

비록 한 실재의 형식이 대상—언어 속에서 스스로 보여질 수 있더라도 그 실재의 형식적 속성은 보여질 수 없다. 왜냐하면, 대상—언어 속에서는 한 기호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장을 보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個別的 生起를 구성한 기호들의 형태에 의해서 한 대상의 형식이나 종류는 밝혀진다.

속성과 함께 특수자들도 相異한 종류이다. 가령 시각적 특수자와 청각적 특수자가 있고 色의 속성과 음(音)의 속성이 있다. Wittgenstein은 '視覺的 (visual)' 과 '色'을 형식적 속성으로 보는 까닭에²¹⁾ 붉음(red)을 表示하는 함수는 오직 시각적 특수자들과만 결합함을 밝힌다. 형식적 속성을 이처럼 細分한 理由는 Wittgenstein이 要素主義와 선천적 종합의 문제를 해결하자는데에 있다.²²⁾

以上の 형식과 형식적 속성 사이의 區別은 속성과 특수자들이 原子사실의 구성요소라는 주장과 충분히 兩立할 수 있게끔 한다.

Wittgenstein은 한 記號의 존재공간과 그 記號法則의 存在공간을 區別한다. 記號는(대상—언어) 문장 속에서 일어난다. 법칙은 실재의 형식과 형식적 속성에 의존하며 실재들이 있는 모습, 즉 內在的인 형식화법칙인(메타 언어 속의)함수에 의해 表示된다. 分明히 그는 함수는 문자로써 (literally) 문장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과 속성을 表示한 기호와 함께 특수자를 表示한 기호도 법칙에 따라 支配된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명제함수 기호법의 사용방식은 Frege의 그것과 너무 判異하다.

以上에서 우리는 문장 속에 함수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點이 결코 속성이 원자사실의 구성요소임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실로 Wittgenstein의 함수기호법을 검토했을 때에 드러난 것은 원자사실의 구성요소가

21) 4.122, 4.125참조

22) E.R. Allaire op. cit. p. 335.

同一한 종류는 아닐 것이라는 點이다.

b. Frege에 의하면, 한 개념은 한 술어를 지시한다. 그런데 한 술어는 存在하는 여러 대상의 이름으로 채워질 수 있는 독립변수이거나 그런 독립변수를 소유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한 개념은 보편자를 가르킨다. 그런데 Wittgenstein은 요소명제는 이름으로 채워진 일단의 독립변수만을 갖는다. 따라서 Anscombe에 의하면, Wittgenstein의 요소명제는 한 개념을 表示하는 어떤 表現도 갖지 않는다고 한다.²³⁾

Anscombe의 사고 방향은 다소 직선적이다. 첫째, 그녀는 보편자의 문제를 말한다: 두 종류의 대상이 있는가? 둘째로, 그 문제의 특수構文的 설명을 요구한다: 言語內에 이름과 함수가 모두 있는가? 셋째로, Wittgenstein의 요소명제는 함수기호를 담지 않으므로 그것에 의해 表示된 원자사실도 Frege가 개념이란 부른 실재를 담지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은 무척 粗野하다. 비록 대상과 개념의 존재론적 區別을 說明하는 유일한 方式이 이름과 함수라는 構文的 區別일지라도, 이 區別을 부인한다고 해서 Frege의 개념과 같은 실재는 원자사실의 구성요소임을 부인한다는 推論은 반드시 옳을 수는 없다. Wittgenstein은 그런 개념도 이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Wittgenstein은 특수자와 속성이 Frege의 대상과 개념보다 훨씬 類似하다고 생각한 듯하다. Wittgenstein에 있어서 종류가 다른 두 실재는 他實在와 결합하는 가능적 범위에 있어서 制限될 뿐만 아니라 또한 불포화적이거나 (unsaturated) 불완전하다. Frege에 있어서는 특수자(대상)는 완전하거나 포화적인 반면에 속성은 불포화적이다. 이런 말의 의도는 특수자는 獨立的 존재인데 속성은 의존적임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Wittgenstein은 “우리는 공간을 떠나서 공간적 대상을 생각할 수 없고 시간을 떠나서 시간적 대상을 생각할 수 없듯이 他事物과의 결합의 가능성을 떠나서 어떤 대상을 전혀 생각도 수 없다.(2.0121)”고 말한다 이런 생각은 Tractatus의 전내용에 스며있다.

Frege에 대해 Wittgenstein이 同意하지 못하는 까닭은 主語의 대상물과 述語의 대상물의 差異와 관계가 있다. Frege는 그 두 대상물이 근원적으로 相異하다고 보는 反面에, Wittgenstein은 서로 밀접하게 닮았다고 보고 있다. 물론 그는 속성과 특수자 사이에 어떤 區別이 있음을 암시하면서도 同一한 面에 더 관심이 집중되는 듯하다.(사실상 한 대상의 形式을 論한다는 것은 相異한 形式이 없다면 論點이 사라질 것이다.) 이처럼 그의 區別이 分明하지 않는데다가 어떤 單純속성의 例도 들지 않은 까닭에 名目論과 같은 해석이

23) Anscombe, op. cit. p. 110.

나올 수 있다.

C. 속성이 단순한 것으로서 대상이라면 '이것은 붉다'와 '이것은 푸르다'라는 두 요소명제는 모순일 수 없지 않은가? 그런데 두 요소명제는 모순이므로 속성은 대상일 수 없다는 Copi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Copi주장에는 논리적 비약이 있다. 특정색을 술어로 했을 때에 요소명제 사이에 모순이 생기므로 그 特定色은 단순속성이 아니라는 사실은 分明한 論證이지만 그 理由만으로 속성은 대상일 수 없다는 주장은 할 수 없다. 그런 주장은 Copi자신의 前提인 「어떤 속성이 단순하다면, 특정색은 단순해야만 한다」에서 초래된 것이다. 특정색이 단순속성이 아니라면 어떤 것도 속성일 수 없다고 Wittgenstein이 믿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名目論的 해석은 결코 어떤 해결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이것은 붉다'는 명제가 요소명제로 환원된다면, 속성들이 원자사실의 구성물인지 如否에 관계없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 문제의 해결은 '이것은 붉다'라는 명제의 還元이 '이것은 붉다'의 否定을 내포하거나 논리적으로 그것을 수반하는 분자적 문장일 것을 요구한다. 더구나 특정 색들은 특수자들의 단순한 결합이라는 주장은 6.3751에서 근거를 둘 수는 없다.

6.3751의 문제는 실재론적 해석을 통해서 비교적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은 붉다'가 요소명제임을 부인한 것은 '붉음'은 특수자의 구성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보다 단순한 속성으로 분석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 뜻이 있다. 이런 뜻을 위하여 6.3751의 괄호 안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뜻으로 옮길 수 있다: '모순'이 진리표에 의하여 설명되고 '이것은 붉고 이것은 푸르다'가 모두가 생각하겠듯이 한 '형식적' 진리라면, 色의 述語化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基本的이 아니다.

이제 Wittgenstein은 그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즉 그는 難點을 放棄하고 있다. 이 때의 그의 뜻은 속성이 특수자의 구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론도 아직 흠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Wittgenstein이 이 難點에 대한 해결하기 위한 방향적 암시가 있다. 그것은 '붉음'과 '푸름'은 정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色의 논리적 구조'라는 句에 의해서도 의도된다.

Wittgenstein은 1929년 논문에서 色의 단어들이 정의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정도의 진술들이 분석될 수 있다면——내가 생각했듯이——우리는 R色은 R의 모든 정도를 포함하지만 B의 어떤 정도도 포함하지 않고 B色은 B의 모든 정도를 포함하지만 R의 어느정도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이것은 붉고 이것은 푸르다"의 모순을 說明할 수 있다.²⁴⁾

24) Wittgenstein L. "Remarks on Logical Forms" in Essays on Wittgenstein's Tractatus

말하자면 色의 단어들을 濃暗의 정도를 表示하는 분석불가능의 단어들로 정의함으로써 Wittgenstein은 ‘이것은 붉고 이것은 푸르다’를 모순이라고 설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실행가능성이 적음을 또한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난점은 근본적이며, Tractatus를 배척하는 理由가 되기도 한다. Wittgenstein이 진리표로써 ‘필연적’과 ‘모순적’을 설명하면서 선천적 종합명제의 형식적성격을 확보하고자 할 때에 모든 명백히 정의가 불가능한 속성적 단어들이 정의될 수 있다고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Tractatus에서 어떤 속성의 예도 모른다. 그는 선천적 종합명제의 형식적 성격을 受用하기 위해서는 ‘모순적’과 ‘필연적’이라는 진리표의 설명방식이 어떤 變容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2. Tractatus前後로 Wittgenstein이 속성은 대상이라고 말한 증거가 있다. 이름은 이것이 저 속성을 소유한다는 주장에 필요하다.²⁵⁾

관계들과 속성들……은 대상들이다.²⁶⁾

그는 또한 1929년의 논문에서 어떤 量的언사로 表示된 어떤 속성들은 원자사실의 구성물이라고 주장한다: 한 성질의 정도를 표시하는 한 진술은 분석해보면, 한 量的 진술과 完成的인 보충진술로 된다. 나는 주장하건대, 한 성질에 한 정도를 귀속시키는 진술은 더 이상 분석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²⁷⁾

또한 그는 Blue Book에서 말하기를 한 ‘대상들의 복합’으로서 한 사실을 말하는 것은 이런 혼란에 由來한다.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상상할까를 가정해보자. 그런 것은 存在하는 요소들의 비존재적 결합을 상상하는 것과 같다. 半人半馬는 存在하지 않으나 사람의 머리와 몸통과 팔, 그리고 말(馬)의 다리는 存在하는 것이다. 그러나 存在하는 어떤 것과 매우 다른 한 대상을 생각할 수 없을까? 생각할 수 없다. 적어도 個體로서 要素는 存在해야 한다. 붉음, 둥근(roundness), 그리고 향기로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요소들을 생각할 수 없다.²⁸⁾

우리는 이러한 논급으로 부터 속성들이 원자사실의 요소임을 Wittgenstein이 주장했던 것을 알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는 또 한 증거를 들면, Wittgenstein이 뜻하는 그림이론²⁹⁾은 相異한 종류의 실재들이 있다는 의미에서 實在論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그림

pp. 35-6.

25) Notebook, 1914-16, Oxford 1961, p. 53-9

26) Ibid, p. 61c

27) L. Wittgenstein, Ibid. op. cit. p. 35.

28) The Blue and Brown Books, Oxford 1958. p. 31.

29) Tractatus 2. 18, 2. 151, 4. 01, 4. 031참조

이론(picture theory)은 언어와 世界사이에 異質的인 同形이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型의 區別을 요구한다. 同形異質論(isomorphism)은 “어떤 論理的인 記號의 일정한 결합에 대해서 그 記號들의 의미(즉, 기호들이 表示하는 대상)의 일정한 결합이 상응한다”(3.203)는 內容의 것이다. 이처럼 그림이론은 언어로서의 요소명제에 가능한 것은 世界內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언어적 가능성은 Wittgenstein이 실재들 위에서 기초지운 형식화법칙의 문제이다(3.334). 그 형식화 법칙이 型의 區別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한에 있어서 종류의 상이성은 명확히 內包된다. 그러나 그림 이론이 한 명제와 그 명제가 表示한 事實이 오직 한 구조만을 共有한다고 주장하므로 그림이론으로부터 事實의 특정구조를 논의할 수는 없다.

E.B. Allaire에 의하면, 실재론이 억제되는 理由가 있다.³⁰⁾ 첫째, Frege의 속성과 특수자의 區分에 대한 반감 때문에 Wittgenstein은 속성과 특수자의 차이보다는 동일성을 강조했다. 둘째, 그는 선천적인 종합명제의 형식적 0속성을 생각한 나머지 분석할 수 없는 속성의 例를 제시하지 않았다. 셋째, 필연적, '모순적'이란 진리표의 설명은 原子事實의 存在論的 분석과는 상관이 없다.

四. 결론——비판적 재구성

Tractatus에 대한 名目—實在論的 論爭은 Wittgenstein의 立場에 대한 새로운 해명을 통해서 再構成될 수 있다.

언어의 본성에 관한 Wittgenstein의 관심은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된다. 첫째, 어떻게 어떤 명제들은 직접 實在과 관계하느냐? 둘째, 어떻게 모든 다른 명제들은 그 기본명제들과 관계되어서 實在과 간접적으로 연결되는가? 그의 태도는 첫질문에 대해서는 要素命題의 '그림이론'이요, 둘째 질문에 대해서는 복합명제의 '진리—기능 이론'이다. 그가 의심할 수 없었던 사실은, 언어가 實在과 연결되어 있다면 世界와 직접 결합된 명제, 즉 다른 명제로부터 의미를 얻지 않는 요소명제가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非요소명제는 요소명제를 통해서 이해되어진다. 그러한 생각은 곧 요소명제의 存在를 형이상학적 추론에 의해서 確信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요소명제도 제시할 수 없고 그런 명제가 있다해도 그 명제들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요소명제의 구성요소들인 '이름'에 대한 분명한 개념과 그 이름들이 表示되는 대상들의 본성과 논리적 형식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형성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Wittgenstein의 立場(즉, 요소명제에 대한 그림이론과 복합명제

30) E.B. Allaire; Ibid. op. cit. p. 341.

에 대한 진리-기능이론)으로 부터 원자사실의 구성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명목-실재론적 논쟁의 爭點을 解釋해낼 수 있다. 이런 해석을 위해서, *Tractatus*에서 세 종류의 言語가 사용되고 있음을 주목해 보자.³¹⁾

첫째, 근본적으로는 논리적 정연성을 갖고 있으나 사용에 있어서 복잡하고 不分明한 日常言語가 있고 둘째, 言語使用에 있어서 眞爲의 진술을 明白히 하는 언어, 즉 日常言語內에 ‘숨겨진’ 것을 명확히 밝히는 ‘明示的 言語(perspicuous language)’가 있고 셋째, 이 두 언어에 대해서 (주로 명시적 언어에 대해서) Wittgenstein이 記述하고 있을 때에 사용하는 言語로서 一種의 메타-언어인 ‘사닥다리 언어(ladder language)가 있다.³²⁾ 실로, 明示的 言語內에는 메타-언어의 ‘명제들’이 일어날 수 없다. 즉, 明示的 言語는 스스로를 진술할 수 없다. 이제 명목-실재론의 爭點들을 이런 태도에서 해석하여 보자.

A. 명목론자들에 의하면, 명제함수에 있어서 대상으로서는 한 個體的常數 단이 일어나며, 또한 요소명제는 이름들로만 구성되므로 原子事實內에서 속성이 일어남을 부인한다. 한편 實在論者들에 의하면, 명제함수는 메타-언어이므로 대상-언어로서의 요소명제의 형식적 속성을 밝히고 있어서, 요소명제가 비록 이름만으로서 구성되어 있더라도 形式이 다른 실재들을 갖고 있음을 밝힌다. 즉 그들은 원자사실은 종류가 다른 실재들을 갖고 그실재는 속성일 수 있다고 한다.

「사닥다리-언어」속에서 우리는 이름지워지지 않는 것이라도 속성과 관계는 表示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內容은 「明示的 언어」內에서는 밝혀져 (be shown)있더라도 말해질 (be said) 수는 없다. Wittgenstein은 속성들과 관계들이 있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특수자와 같은 型으로 類推되는 것도 부인하는 것이다. 이런 點에서 그는 實在論的이다. 분명히 속성과 관계들이 없다면 원자사실도 없을 것이다.

원자사실은 대상들의 혼합(mixture)이 아니라 구성(configuration)이다. 그러나 그런 속성들은 요소명제에서 이름으로 표시되는 대상일 수 없다. 요소명제를 기술하는 사닥다리-언어인 명제함수가 진술하는 속성이나 관계는 요소명제 內에서 이름들의 구성된 모습(feature)이다. 따라서 속성은 원자사실을 구성하고 있는 대상들의 한 모습이다.

B. 명목론자들에 의하면, 물질적 속성은 대상에 의해서 비로소 형성되므로 대상일 수 없고, 따라서 물질적 속성은 원자사실을 구성하지 못한다. 실재론

31) Richard J. Bernstein, Wittgenstein's three Language, op. cit. pp.234-236.

32) ‘사닥다리’라는 명칭은 그 언어가 ‘明示的 언어’를 설명하기 위한 方便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붙인 이름인 것 같다(Tractatus, 6.54참조)

자사실을 구성하는가 (2) 속성은 특수자와 종류가 다른가라는 질문에 모두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그러나 이름으로 表示되는 특수자와는 종류가 전혀 다르다는 면에서, 속성은 특수자와 같은 實在(entity)일 수 없다. 그러면 어떠한 실재인가? 그것은 대상들의 구성에 의해서 表示되는 것으로서 대상들이 결합하여 있는 실제의 事實속에서 그 때 그 때 나타나는 偶然的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상은 事實(facts)과 獨立하여 있는 것임에 反하여 속성은 반드시 事實로부터만 나타난다.

<참고 문헌>

- L. Wittgenstein,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N.Y. 1951.
Philosophical Investigation, Blackwell 1953,
The Blue and Brown Books, Oxford 1958.
- Max Black, A Companion to Wittgenstein's Tractatus, Cornell 1964.
- I.M. Copi & R. W. Beard. Ed. N.Y. Essays on Wittgenstein's Tractatus
1966. 안에서
I.M. Copi; Objects, Properties, and Relations in the 'Tractatus'
E.B. Allaire, The 'Tractatus' Normalistic or Realistic?
W. Sellars, Naming and Saying
R.J. Bernstein, Wittgenstein's three Language
L. Wittgenstein, Remarks on Logical Forms
- J.O. Urmson, Philosophical Analysis, Oxford 1958.
- Anscombe G.E.M., An Introduction to Wittgenstein's Tractatus, London
1959.